

# kiri Weekly

2015.4.20 제329호

## 이슈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 글로벌 이슈

ASEAN 경제공동체 출범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산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용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 원인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 요약

- 최근 국내 은행의 생산성이 20여 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생산성 하락의 원인이 은행들이 효율적 자금 배분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은행이 효율적 자금배분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과거부터 지속된 금융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때문인 것으로 보임.
  - 90년대 시작된 자본자유화와 금리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규제로 인해 은행 본연의 기능인 가계와 기업의 위험평가와 이에 근거한 가격(금리)결정 역량이 배양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간접적 규제로 차주의 위험평가 역량 배양은 어려웠음.
- 보험산업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2000년 초 형식적인 보험료 자유화는 완료되었으나 그림자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위험평가와 가격결정 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보임.
  -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들의 미미한 해외사업 경영성과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에 불과하고 현지 시장점유율은 미미함.
  - 1994년 보험료 규제 철폐 이후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확대되었고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외시장에서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원인이 이러한 핵심 역량이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금융산업의 생산성 하락은 금융산업의 역할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금융산업의 가격 발견 기능 확보는 노후소득과 건강위험 보장, 그리고 실물경제 발전 지원이라는 금융산업의 역량 제고와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필요조건임.

## 1. 검토배경



■ 김세직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은행의 생산성이 1991년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sup>1)</sup>

- 국내 은행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이 2007년 2.74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생산성은 1991년 수준과 동일한 1.70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은행의 생산성 저하 원인으로 은행의 핵심 능력 배양 부족과 외환위기 이후 외형 경쟁이 제시됨.

〈표 1〉 국내 금융산업의 ROE 추이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은행	14.6	14.6	7.2	5.8	7.2	8.4	6.2	2.7
보험	10.8	11.9	6.0	9.1	11.5	8.8	7.2	4.9
증권	11.8	14.8	6.4	8.3	7.5	5.3	2.9	-0.5

주: 증권과 보험업의 ROE는 FY기준 당기순이익/총자본으로 정의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4월부터 12월간 누적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핵심 능력이 배양되지 못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개선해야 함.

- 김세직 교수는 은행의 핵심 능력을 “생산성이 좋은 기업을 가려내어 이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핵심 능력은 정부 주도 금융자원 배분과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외형경쟁으로 인해 충분히 배양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함.
- 보험산업의 경우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계의 노후소득과 건강위험, 그리고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적절한 가격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고객의 건강 관련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지만 안전할증 범위 규제를 받고 있고,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경우 손해율 상승을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은행과 보험산업의 미미한 해외사업 경영성과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핵심 능력 부재일 수 있음.
  - 국내 은행의 해외자산 비중은 4.3%,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1.0%에 불과하고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의 현지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함.

1) 매일경제(2015. 2. 4), “한국 금융 금리장사에만 의존...생산성 20년전 수준 곤두박질”,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 본고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저하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영국과 독일 보험산업의 규제 환경과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확대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규제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2. 국내 은행의 생산성 저하 원인



■ 국내 은행산업이 핵심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90년대부터 지속된 예금·대출금리 규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sup>2)</sup>

- 90년대 금리자유화로 단기 여·수신 상품은 자유화되었으나 은행의 대출금리는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 조운제(1999)는 은행의 우대금리가 우량회사채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평가의 근거로 제시함.<sup>3)</sup>

〈표 2〉 90년대 국내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비중

(단위: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직접금융	42.4	37.9	41.4	52.9	38.1	48.1	47.2	37.1
간접금융	38.4	41.8	36.3	31.4	44.5	31.8	29.1	37.9
해외차입	6.4	4.1	7.1	1.5	6.6	8.4	10.4	6.1

자료: 조운제(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 은행들은 기업 대출보다는 기업어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종합금융회사들과 경쟁함.

2) 조운제(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3) 91년부터 96년까지 기업어음, 회사채 금리가 간접금융인 은행 대출 기준금리보다 높게 유지되어 왔으며 회사채 발행물량은 정부의 시중금리 상승 억제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고 평가함.

〈표 3〉 90년대 은행 신탁자산 규모와 운용

(단위: 십억 원)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신탁자산 규모	57,901	69,272	95,525	133,108	167,835	212,072	245,326	287,892
대출금	11,282	15,888	23,935	26,766	37,556	44,374	54,572	61,171
회사채와 기타 유가증권	27,735	32,915	48,019	76,511	91,208	123,094	148,350	182,618

자료: 조운제(1999), 『1990년대 한국의 금융자유화방식과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 은행의 대출금리 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됨.<sup>4)</sup>
  -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은행에 대한 규제는 수수료와 금리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속되었고 이러한 가격규제는 은행들의 외형경쟁을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함.<sup>5)</sup>

#### ■ 취약한 핵심 능력은 미미한 해외사업 성과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규모는 확대되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되는 국내 은행이 여섯 개에 이르지만 해외자산 비중은 4.3%에 불과함.<sup>6)</sup>

### 3. 국내 보험산업의 가격 규제와 경쟁력



#### ■ 2000년 초 보험료 자유화가 완료되었으나 그림자 가격 규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김석영 외(2014)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에 기본이 되는 위험률 평가가 제한되고 있음.<sup>7)</sup>
  - 감독당국은 위험률 모범기준을 통해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30%로 제한하고 3년마다 참조순 보험요율을 갱신하는 등 위험평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음.<sup>8)</sup>
  - 또한 구두지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가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음.

4) 자금조달 비용 측면에서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간접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임.  
 5) 한국은행(2008)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대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되기 보다는 특정 수준으로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천병철·권효성(2008),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한국은행 Monthly Bulletin.  
 6) 전용식(2014, 5),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7) 김석영 외(2014, 11),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8) 지난 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안전할증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향후 할증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보험신보(2014, 12, 15).

- 이러한 보험료 규제는 보험료 산출원칙 중 보험료의 비과도성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위험을 반영한 적정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보장하는 담보의 발생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할증이 허용되지 않아 사업비차를 통해 부족한 위험보험료를 보전할 수밖에 없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 자 규제에 인상된 손해율만큼 보험료가 인상되기는 어려움.

■ 이러한 규제는 국내 은행산업의 생산성 감소와 같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임.

- 국내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결정과 이에 기반한 경쟁 경험 부족은 해외 보험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2003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현지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은 0.06%에 불과한 반면 2003년 진출한 미국 Liberty Mutual의 시장점유율은 4.59%, 2009년 진출한 일본 미쓰이스미토 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 0.18%임.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부진 원인이 이외에도 다른 것을 들 수 있으나 위험평가와 보험료 결정 등 핵심 역량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임.<sup>9)</sup>

■ 반면 손해보험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 요율과 상품규제는 철폐된 반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영국 보험산업의 규제환경을 지칭하는 “Freedom With Publicity”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규제환경이 영국 보험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됨.
  - Freedom with Publicity란 독립적인 계리사 혹은 관련 기관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보험회사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의미함.
  - 이러한 규제환경은 보험회사의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sup>10)</sup>
- 반면 독일의 경우 1994년 상품 및 요율규제 철폐 이후 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와 이에 근거한 보험료 경쟁이 본격화됨.<sup>11)</sup>
  - 1994년 이전에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요율 및 약관 사전인가 의무가 있었으나 자유화 이후 요율규제가 철폐됨.

9) 전용식 외(2014, 12),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보험연구원.

10) Record of Society of Actuaries, 1990 Vol. 16, No 4A.

11) Allianz Annual Report(1996).

■ 규제 철폐 이후 독일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 심화로 보험료와 손해액 증가율은 규제 철폐 이전에 비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 손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활발해짐.

- 전년대비 자동차보험료 증가율은 1985년에서 1993년간 평균 8.6%, 95년부터 2003년간 평균 0.2%로 크게 둔화됨.
  - 규제 철폐 이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경쟁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같은 기간 평균 8.4%에서 평균 0.2%로 줄어들었고 표준편차는 5.8%에서 2.6%로 감소함.

〈표 4〉 독일 자동차보험 주요 지표

구분	보험료 증가율	물가상승률	손해액 증가율	평균 손해율
1985~1993	8.6%	2.5%	8.4%	93.3%
1995~2003	0.2%	1.4%	0.2%	94.2%
2004~2012	-0.1%	1.7%	0.4%	92.7%

주: 기간별 평균 수치임.  
자료: 독일 보험협회

- Altuntas 외(2012)에 따르면 1999년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33%가 해외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2009년 46%로 늘어남.<sup>12)</sup>

■ 독일의 보험그룹인 Allianz는 자유화 이후 1995년 8월 신요율체계를 도입하여 손해보험 부문의 성장세를 가속화하였으며 대부분의 진출국가 손해보험시장에서 상위 5위 이내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전세계 손해보험부문 1위인 Allianz는 해외법인 49개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해보험,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손해보험부문 수입보험료의 34%를 자동차보험이 차지하고 있음.
- 규제 철폐 이후 Allianz는 개인 고객의 위험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율을 차등화하였는데, 사고 발생률이 낮은 고객들에게는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인하함.
  - 1995년 8월 차종, 차량 연식, 차고 유무, 주행거리, 성별, 복수운전 유무, 계약자 연령과 직업

12) Altuntas 외(2012)는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 매년 50여 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외사업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1999년에는 39개 조사대상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13개가 해외사업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2009년에는 48개 회사 가운데 22개 회사가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등을 기준으로 고객의 위험도를 세분화하여 새로운 요율시스템인 Risk Aligned Rate를 도입함.

-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결정 역량은 시장개척 등 수익원 다변화와 보험료 적정성 제고, 포트폴리오 퀄리티 제고로 이어져 그룹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 5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캐나다에서 시작하였는데, 수입보험료는 94년 6백만 캐나다 달러에서 2004년 매각 당시 6,800만 캐나다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함.
  - 기업성 보험의 경우, 기업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고 기업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함.

#### ■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보험료 규제 완화가 보험산업의 위험평가 역량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시사함.

-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부진한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위험평가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사업 성과가 미미할 수 있음.
- 그리고 취약한 경쟁력은 은행의 경우와 같이 위험평가에 근거한 가격 결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음.

## 4. 결론 및 시사점



#### ■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부재는 금융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가 원인일 수 있음.

- 국내 은행업의 생산성이 저하된 원인 가운데 장기 대출금리 규제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객의 위험평가와 가격 설정 역량 부재는 취약한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가격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그림자 규제가 지속되고 있음.

#### ■ 보험료와 상품 규제가 철폐된 독일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 및 보험료 결정 역량이 제고되었고 경쟁력 제고와 해외사업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철폐 이후 독일 자동차보험시장의 보험료와 손해액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어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들간의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후생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의 위험평가 역량 제고는 기업고객의 리스크 관리 제고를 유도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를 낮추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한 것으로 보임.
  - Allianz 등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져 독일에서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보험회사들도 해외사업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함.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그림자 규제는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노후소득과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고 공적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임.
  -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방안으로 제기되는 해외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
- 국내 은행의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의 원인이 90년대 가격 규제라는 점은 보험산업의 가격 규제 철폐가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산업 역할 제고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kiri](#)